

# 전원주택 배치와 평면에서의 자연 연계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in the Layout and Plan of Contemporary Suburban House.

최 중 철\*

Choi, Jong-Chul

### Abstract

Contemporary Suburban House is a kind of 'Urban House in nature' that urban middle class peoples elect voluntarily to raise life quality and make their own identi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is an essential item in the design of Suburban House.

But in the site plan of Suburban House, 'The Nature' as outdoor space is only the rest of the indoor space. The outdoor space is hold in common visually but not actually. 'The Nature' is not a labour ground as the case in rural society but a background of village.

The plan of Suburban House is based on the urban apartment plan. So in plan, 'The Nature' is also an object for contemplation as the case in urban house. The outline of the plan as a border line between indoor space and outdoor space is controlled uniformly and 'The Nature' is linked only visually in the direction the resident wants to see.

**키 워 드** : 전원주택, 배치와 평면, 자연 연계성, 시각과 동선

**Key Word** : Suburban House, layout and plan,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visibility and circulation

## 1. 서 론

### 1.1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원주택들은 중산층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대생적으로 자연 지향적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축형식들이 결정됨으로써 자연과의 연계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전원주택의 본연의 목적을 극대화하여 도시 주거의 올바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축형식과 자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전원주택의 형식을 제안하기 위한 일환이다.

### 1.2 연구방법

자연과의 연계성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자연과의 소통을 다루는 것과 형태적인 관점에서 자연과 어울리는 정도를 다루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중 형태적인 관점에서 자연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은 건물외관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개인적인 취향이나 주관성이 강한 항목이다. 따라서 객관성을

\* 여주대학 건축과 부교수

유지하기 힘든 내용으로 분류됨으로 연구에서 제외한다.

연구의 초점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자연과의 소통을 다루는 것이며, 배치와 평면형식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배치상의 문제는 단지차원에서의 외부공간에 대한 것을 다룬다. 평면상 논의되는 자연 연계성은 건축외곽의 형식에 대한 것으로 시각과 동선의 관점에서 자연과 연계되어있는 방식과 규모를 논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분석되는 배치와 평면형식이 자연 연계성의 관점에서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기준은 애초 전원주택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자연에 대한 의미에서 도출된다. 자연 연계성에 관한 특별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은 최초의 건축목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델들은 1990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 건립된 일반적 전원주택들이다. 일부 건축가들에 의해 고안된 형식들은 전체 전원주택의 극소수이며, 일괄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제외한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일부 현장방문을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잡지에 의해 소개된 것들이나 기존 연구를 통해 소개된 것들을 포함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연구의 주목적이 특정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형식문제를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전원주택건축의 성립과정과 일반적 경향

### 2.1 성립과정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현재의 유형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로 추정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인 주택공급부족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대단위 주거단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대도시주변의 베드타운에 중산층의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와중에 개별적인 차원에서 전원주택건립이

이루어졌다. 이 유형들은 도시의 중산층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립되었으며 도시에 경제기반을 두면서 자연의 혜택을 최대한 수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건립된 것이다. 1990년 이후에는 전원주택 건립이 급증하게 되었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도시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자 중산층들의 이주욕구가 커지게 되었다. 중산층의 욕구는 자동차의 확산과 교통의 발달로 환경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희망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도시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도시와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최적의 전원주택지는 도시 주변의 지가가 저렴하고 자연 환경이 양호한 곳이었다. 1994년 국토 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원주택건립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광역도시권의 주변에서 급증하였다.

전원주택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관련 잡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지금은 별장이나 주말주택, 농촌주택 등과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전원주택이라는 용어 속에는 도시민들의 주거라는 것과 자연친화적 단독주택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1995년 주택정보사의 기사에는 전원주택을 “도시 의존형 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과 교류하기 위하여 찾는 주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sup>1)</sup> 그에 비해 구동회는 “도시 생활양식을 영위하는(혹은 영위했던) 사람이 도시를 벗어난 교외 및 농촌지역에 순수 주거용으로 상시 거주하기 위해 지은 단독주택”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sup>2)</sup> 구동회의 정의는 기존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원주택과 교외주택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도시의 교외지역은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연환경의 혜택을 추구하는 전원주택과 교외주택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1) 주택정보사, 전원주택, 서울, 1995, pp.99-101

2) 구동회,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 15

## 2.2 일반적 경향

여러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전원주택은 근본적으로 도시생활양식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하는 자연속의 주택이다. 따라서 전원주택의 형식에는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도시적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지향점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위해 자연과의 교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과 '도시'의 개념은 전원주택을 결정하는 두 축이 되고 있다.

전원주택의 생성과정에서 지금의 전원주택은 탈도시화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도시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생활의 근거를 전원으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탈도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자연 속에 생활의 기반을 둔 농촌주택과는 달리 도시적 요인이 전원주택의 현재 모습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특별한 문화를 형성한다. 단정적으로 지금의 전원주택은 '자연속의 도시주택'<sup>3)</sup>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도시적 성향을 지닌 배치와 평면형식을 갖는다. 외관은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과 개인적 취향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지니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변형이 어려운 배치나 평면형식은 도시형 주거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부분적으로 건축가들의 의해 건립되거나 동호인들에 의해 단지개념이 포함된 예외도 있지만, 이 현상은 일반적 이주자들의 자율적 설계에 의해 건립되는 전원주택들 대부분에서 발견된다.<sup>4)</sup>

3) 김승범은 전원주택을 도시근교에 위치한 주택으로 '낮 동안의 도시생활'과 '자연속의 주거'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김승범, 전원주택에 나타난 한국현대도시인의 자연에 대한 욕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35

4) 2005년 8월에서 2006년 3월에 걸쳐 경기도 여주, 양평, 이천 지역에 산재된 전원주택단지 12곳 82세대를 조사한 결과 동호인들에 의해 건립된 단지는 1곳이었으며, 건축가들에 의해 건립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하였다.

## 3. 자연 연계성의 의미와 실천방식

### 3.1 전원주택에서의 자연의 의미와 가치

친환경적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이든 노동을 통한 가족 공동체적 의식의 고양이든 도시주거와 비교하였을 때 전원주택에서 자연은 최고의 혜택이며 존재의미이다.<sup>5)</sup> 이것은 거주민들의 이주 동기를 통해서도 잘 파악된다. 구동회는 전원주택 거주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주 동기는 경관과 생활양식을 비롯하여 고용요인, 가족요인, 은퇴요인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서술한다.<sup>6)</sup> 하지만 도시 내의 주거이동에 비해 전원지향 이주의 주요한 동기는 주택 자체보다는 주택을 둘러싼 환경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짐을 강조한다. 즉 주택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쾌적함과 양호한 경치를 지향하거나 전원에서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면담자중의 70%)이다.

의미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건립되는 전원주택건축 속에서 자연은 자의적으로 해석된다. 건축은 배치나 평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습관적으로 몸에 밴 도시적 형식과 적당히 혼재되어 있다. 아파트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박스형의 윤곽 속에 단순하게 실들이 분할된 평면을 양산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건립되는 대다수의 전원주택에서 발견되며, 건전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거나 전원주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의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3.2 실천방식으로서의 시각과 동선

전원주택건축과 자연의 연계는 내부와 외부라는 공간적인 대개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계는 시각과 동선의 관점에서 거론된다. 시각의 관점에

5) 아모스 라포포트에 따르면 현대주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향과 태양, 건강 그리고 운동이다. 아모스 라포포트/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서울, 1985. p.182

6) 구동회, 앞의 책, p.118

서는 거주자들이 자연을 바라보고 즐기는 방식이나 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근경으로서의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을 향한 개구부의 크기와 형식을 정하는 것과, 원경으로서의 자연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물전체의 향이나 전망을 위한 개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한정된다. 물론 건축의 향은 전망이라는 요인이외에도 채광이나 통풍,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고려가 없이도 대부분의 전원주택에서 필연적으로 추구되는 항목이며, 시각의 관점에서 함께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분석요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동선의 관점에서는 외부공간으로서의 자연을 활용하는 문제와 이를 위해 건축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간의 소통의 규모와 방식이 논의된다. 외부공간의 활용방식과 빈도는 내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계영역의 건축형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건축가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일부 전원주택의 경향을 분석한 박태규는 옥외공간과의 연계를 위해 실외에서 실내로 전환되는 경계영역으로서 전이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최근의 설계경향으로 분류하고 있다.<sup>7)</sup> 결과적으로 동선에 의한 자연과의 연계성은 외부공간의 활용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며 건축외곽의 형식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 4. 전원주택 배치와 평면에서의 자연연계성

##### 4.1 배치에서의 자연 연계성

전원주택의 배치형식에서 거론되는 자연과의 연계성은 마당으로 규정되는 개별주택의 외부공간이 주택의 내부공간과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와 단지차원에서 건축을 둘러싸고 있거나 개별 건축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외부공간의

형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중 전자의 경우는 배치의 문제임과 동시에 평면형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면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배치에서 거론되는 자연 연계성은 단지차원에서 외부공간의 활용과 형식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단지와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전원주택들은 허가절차상의 어려움이나 기간시설수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홀로 주택형식보다 여러 세대가 모여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에는 안전성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고립될 수 없다는 건축주들의 감성도 작용한다. 전원주택단지의 크기는 대부분 10세대-40세대의 범위에 드는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개별 대지들은 길을 따라 방향으로 구획된 형식이 대부분이며, 독립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전면은 대부분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고 입구는 후면이나 전면에 형성된다.<sup>8)</sup>

현실적으로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전원주택들 중 단지 차원에서 자연과의 연계성이나 이웃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전원주택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 일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건립되는 단지형 전원주택들도 있으나, 그나마 단지계획의 개념이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전원주택단지들은 대부분 단지의 개념이 없이 단독주택들이 단순하게 모여 있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은 전원주택이 분양되는 방식에도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부지의 규모는 100-300평정도로서 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며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 없는 크기이다. 따라서 전원주택부지 분양업자들은 대규모의 개발 가능한 땅을 매입한 후 100-300여 평 크기의 필지

7) 박태규, 증산층을 위한 전원주택 설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2. pp.22-34

8) 양문규는 이러한 배치형식이 단지형 전원주택과 더불어 단독형 전원주택에도 적용되며, 우리나라 주택의 전형적인 배치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양문규, 전원주택의 공간구성 동향 및 건축적 특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33

로 분할하여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필지 분할 방식은 단순히 길을 내고 일정하게 필지들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런 단지구성은 자기 소유의 면적을 가능한 크게 하려는 건축주들의 욕구와 자투리 없이 땅을 매각코자 하는 분양업자들의 욕구가 합치된 결과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을 공유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웃 간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별도의 단지계획개념은 없다. 여러 세대로 구성된 전원주택단지의 모습은 일률적으로 길을 따라 일정하게 분할된 대지에 전혀 다른 모습의 단독주택들이 단순하게 모여 있는 모습이 된다.

단독주택들이 단순히 집합되어 있는 단지들은 자연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해 자연의 혜택을 극대화해야 하는 전원주택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단순하게 집합된 전원주택단지내의 자연은 건축이라는 내부공간을 만들고 남은 나머지 공간이라는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적극적인 외부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없이 내부공간과 연계된 기능을 부여받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전원주택단지 속에서 자연은 단지 공동체의 의미가 부여된 공동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단지공동체가 공유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공간으로서 자연은 인접한 세대 간 완충공간이 되기도 하며 노동을 비롯한 공동행사공간이 되기도 한다. 김승범에 따르면 전통적인 농촌마을(그림 1)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용공간이 산재되어있다.<sup>9)</sup> 공용공간은 마을회관이 들어서기도 하며 공동 작업 혹은 공동 행사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공간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만나며 생산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공유한다. 또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은 공동체를 위한 외부공간이며 이웃 간에 공유되는 완충공간이다. 마을을 둘러싼 자연은 시각적으로 공유되며 공동노동공간이기도 하다. 농촌마을과 대비되는 유형



그림 1. 경북 달성군 묘동 농촌마을

은 도시의 단독 주택군으로 직선형의 도로에 의해 거의 획일적으로 분할 되어있으며 별도의 공동마당은 형성되어있지 않다. 사람간의 만남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세대들은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고 물리적 진입을 막기 위해 높은 담과 커다란 대문에 의해 단절되어있다. 도시의 단독주택군 속에서 자연은 개별적으로 소유된다. 심할 경우에는 가족 간에도 소유되는 자연이 다르다. 그에 비해 아파트와 같은 도시의 공동 주택 속에서 자연은 주민들에 의해 공유된다. 주민간의 교류가 가능하며 공동체적 의식을 공유하는 곳이다. 하지만 세대 간 완충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소유되지 못해 애착이 없고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전원주택군(그림 2)은 농촌마을의 특징과 도시 단독주택군의 특징을 동시에 포함한다. 단지는 도시의 단독주택 군처럼 계획된 도로에 의해 구획되어있으며 계획된 공동공간은 별도로 설정되어있지 않다. 도시의 단독주택처럼 개별화된 자

9) 김승범, 앞의 책, pp.3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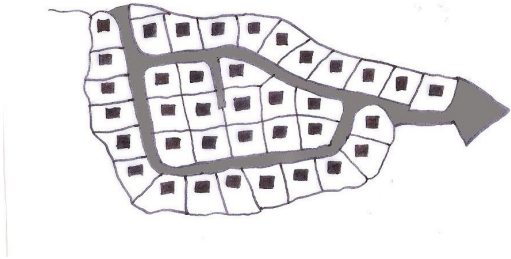


그림 2. 경북 경산시 프라임벨리 전원마을

연이 조성되어있으며 담이나 울타리로 영역이 구분된다. 도시의 단독주택처럼 세분화되지는 않으나 이웃과는 구분되어있다. 다만 개별화된 자연은 대부분 시선이 통과되는 낮은 담이나 울타리로 경계 지워져, 시각적으로는 서로 개방되어있다. 보다 넓은 자연이 확보되며 이것은 이웃 간의 완충 공간이 된다. 전원마을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은 시각적으로 공유되는 대상이지만 농촌마을처럼 공동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다. 전원주택단지속의 자연은 부분적으로는 농촌마을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도 하나, 도시 단독주택군의 배치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도시주택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 4.2 평면에서의 자연 연계성

평면의 문제는 공간적 배치에 관한 문제이며,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한의 문제이다.<sup>10)</sup>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배치는 사람들의 동선과 시선을 제한하며, 평면 전체의 형식은 내부와 외부 간 사람들의 동선과 시선의 제한과 관련된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원주택의 평면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거실공간을 위주로 겹집형식을 취한다. 전원주택의 평면형을 구분한 연구는 여럿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카테고리 지닌다. 전원주택의 평면형은 대부분 거실의 위치와 위상과 관련되어 나뉘어 진다. 서

10)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서울, 2001. p.16

울과 경기지방의 전원주택 41세대를 대상으로 평면분석을 실시한 김승범은 평면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그중 가장 많은 수의 세대(15세대)가 포함된 1유형(그림 3)이 도시의 아파



그림 3. 제 1 유형

트 평면과 유사한 유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홀을 두고 거실이 독립된 2유형(12세대, 그림 4)도 현관에서 안방으로의 진입이



그림 4. 제 2 유형

거실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1유형과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평면의 일종이며, 6세대를 차지하는 3유형(그림 5)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외부공간을 갖고 있지만 방형의 평면을 분할하면서 방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이다.<sup>11)</sup>

충북 청주의 외곽지역에 분포된 전원주택들의 평면을 분석한 변정녀의 논문에 제시된 평면유형들도 유사하다.<sup>12)</sup> 크게 거실 중앙형, 거실 독

11) 김승범, 앞의 책, pp. 5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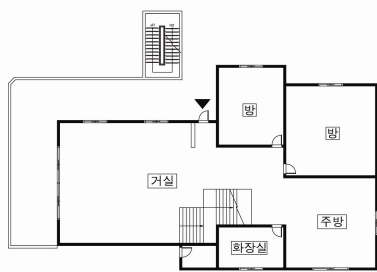


그림 5. 제 3 유형

립형, 편복도 거실 통로형으로 나뉘어진 유형들 중 거실 중앙형은 김승범이 제시한 1유형과 유사하며 총 33세대 중 16세대를 차지하고 있고 거실 독립형은 김승범이 제시한 2유형과 유사하면서 총 14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편복도 거실 통로형은 거실이 없이 전통적인 대청마루를 가운데 앞쪽에 위치한 형식이나 대청마루를 거실로 간주한다면 1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형식이 기본적으로 도시 아파트 평면유형을 따르는 것은 전체 평면의 윤곽이 사각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겹집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가운데에 중심공간을 두고 나머지 공간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형식은 전형적인 아파트 평면이다. 부분적으로 방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외부로의 조망을 위해 약간의 요철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런 현상은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주들이 도시 아파트 평면에 익숙해져 있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 아파트인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주택평면도 부분적으로 진화하면서 부분 홑집, 부분 겹집형식을 취하고 기능분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도시의 주택평면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상적인 도시주거유형으로 인식되는 아파트평면은 부분적인 홑집이 없이 전체 틀에서 분할된 방향의 평면 내에서 채광을 위해 거실의 너비가 커지면서 전체가 겹집형식을 취한다. 거실로 활용되는 대청마루가 현

관 역할을 하는 농촌 주택에 비해 아파트는 별도의 현관이 구성되고 거실 전면에는 부분적인 테라스공간을 사이에 두고 자연과 구분된다. 농촌주택에서 자연은 행위의 공간이자 조망의 공간이지만 아파트에서 자연은 오직 바라보는 대상이다.<sup>13)</sup> 대부분 허공에 떠있게 되는 아파트주호에서 외부와의 연계는 각 주호의 앞, 뒤 배란다공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나마 시각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아파트의 평면을 근간으로 형성되는 전원주택의 평면은 직접적으로 지면과 외부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애초부터 한정시킨다. 자연과의 연계성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전원주택의 평면이 도심 아파트평면의 한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신구에 따르면 오늘날 아파트의 폐쇄성과 자연에 대한 태도는 근대 시기동안 여러 건축가들과 작품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온 항목이며, 근대주거가 웰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발생하게 된 사항이다.<sup>14)</sup> 오염된 도시의 외부환경과는 무관하게 표준화된 근대인들의 삶을 수용하는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개발된 아파트는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기계로서 작동한다. 아파트에서 외부는 내부와 철저히 단절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외부로 열린 유리의 위치와 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외부를 받아들일겠다는 근대적 주거공간의 특징 속에서 파악되는 부분이다.

전원주택의 평면에서 나타난 외부와 내부의 연계방식이 아파트와는 다르게 현관과는 별도로 외부로 이어지는 동선을 형성한다든지 시각적으로도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개구부를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부로 열려있는 면적 면에서

13) 농촌주택과 도시주택의 평면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최찬환, 한국의 농촌과 도시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p.12-29 를 참조할 것.

14) '근대적 집-상실'로 규명된 이 현상은 외부환경과 조화된 주거형식은 급격하게 악화되어가는 외부환경에 의해 주거환경조차 파괴되어간다는 반성론에 근거한다. 우신구, 근대 주거의 내부/외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pp.130-133

12) 변정녀, 전원주택 건축계획과정과 거주자의 주거형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59-61

관리와 방법의 문제를 고려하여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외부와의 연결도 주로 현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로 경계 짓는 외곽은 정형적으로 조정되어있으며 외부는 내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만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비시각적인 감각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은 현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시각적으로만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은 전원주택들이 자연 속에 입지하면서도 근대이후 발전되어온 도시의 주거형식을 비판 없이 따랐던 결과로 파악된다.

## 5. 결론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은 많은 순기능을 갖는다. 건축의 기본적 가치들을 재평가할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하고, 중산층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건전한 사회구성을 유도한다.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도심 주거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대도시 주변 공간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건립되는 대부분의 전원주택들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여 안정된 주거형식이 되지 못한다. 특히 자연과 관련된 배치와 평면의 개발이 없어 전원주택 고유의 가치가 퇴색되어 유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원주택의 배치나 평면형식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원주택 고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배치나 평면을 통해 자연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대부분의 전원주택단지들은 도시형 단독주택들이 단순히 집합되어 있는 형식으로 자연은 건축 이외의 나머지 공간이라는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적극적인 외부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3) 전원주택단지는 농촌마을의 특징과 도시의 단독주택군의 특징을 동시에 포함한다. 단지 내 외부공간은 시각적으로 공유되지만 농촌마을처럼 공동으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한다.

4) 전원주택의 일반적인 평면유형은 아파트 평면유형을 근간으로 한다. 그에 따라 자연은 바라보는 대상으로 가치가 축소되어있고, 자연과의 연계성도 아파트 평면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나타난다.

5) 전원주택의 내부와 외부로 경계 짓는 외곽은 정형적으로 조정되어있으며, 외부는 내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만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비시각적인 감각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은 현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시각적으로만 연결되는 한계를 지닌다.

## 참고문헌

1. 주택정보사, 전원주택, 서울, 1995.
2. 구동희,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 김승범, 전원주택에 나타난 한국현대도시인의 자연에 대한 욕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박태규, 중산층을 위한 전원주택 설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변정녀, 전원주택 건축계획과정과 거주자의 주거형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 아모스 라포포트/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서울, 1985.
7. 양문규, 전원주택의 공간구성 동향 및 건축적 특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8. 우신구, 근대 주거의 내부/외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9.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서울, 2001.
10. 최찬환, 한국의 농촌과 도시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